

일대기

1996. 04. 05 “나의 상징 거북이, 나무”

‘하늘을 나는 거북이’라는 태몽을 꾸신 부모님 밑에서 ‘민족의 재상’이라는 멋진 이름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식목일에 태어나고 손발이 길쭉하여 튼튼한 나무처럼 자라길 바라셨고, 주사를 맞고도 울지 않을 정도로 순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2012 ~ 2014 “행복했던 청소년기”

학창 시절, 유쾌한 말솜씨와 리더십 덕분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축제 MC를 보기도 했고, 학급 회장으로 즐거운 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공과 친구들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던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2015 “성인, 고집스러운 목표”

부족한 실력과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존심만 강했던 20살이었습니다. 명문대만을 고집하며, 대학 진학을 거부하고 학점은행제도로 학사편입을 준비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자는 의도였지만, 이때부터 입시라는 우물에 한참 동안 갇히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며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지출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기였습니다.

2016 “첫 번째 입시 도전”

학사편입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일반 편입으로 시험에 도전했지만,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2017 “대한민국 공군 복무”

대한민국 공군에서 군 복무를 하며 책임감과 조직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 “두 번째 입시 도전, 성취감과 책임감”

전역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입시에 도전했습니다.

현재는 학벌이라는 지표로 능력을 유추하거나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뛰어난 결과였다고 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후회 없는 선택으로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던 그때의 자신감, 굽히지 않았던 도전 끝의 성취감, 아들 하나 믿고 힘들게 도와주신 부모님과 입학금을 건네던 사회 초년생의 누나 등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2020 “코로나19, 돈의 무게”

급할수록 돌아온 캠퍼스 생활의 설렘과 기대를 반겨준 건 코로나19였습니다. 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치킨집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의 가게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재학생들에 비해 학업능력이 뒤쳐졌던 것도 사실이며, 비대면 전환으로 흥미를 잃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학업성취를 이루기보단 부모님의 가게를 도왔고, 가족과 나를 지켜주는 건 돈뿐이라는 어리석은 감정에 휩싸여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2022 “첫 직장”

보다 안정적인 직장 and 내가 선택한 전공을 바탕으로 한 직업을 얻기 위해 식품회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구직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과 젊은 패기, 열정 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식품 산업의 유통 흐름과 매출 관련된 업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024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의 경험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를 상징하는 거북이처럼, 시작은 느리더라도 꾸준히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상징하는 나무처럼,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식품 상품기획자로서의 출발을 오피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